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신정중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552-8200 FAX: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총회 설립 80주년 기념 대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18일부터 4일간 우리 교회서 개최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주제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설립 80주년 기념 대회 및 제29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내일(5월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 대회와 기도회는 전국에서 약 3천여 명의 목사와 장로가 참가할 예정이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를 도우셨음을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 기도한다.

새벽 기도회와 오전 강의, 오후 강의, 그리고 저녁 집회로 계속되는 3박 4일간의 구체적인 일정은 총회 임원과 실무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행사의 강사로는 우리 교회 당회장 신성중 목사를 비롯하여 총회장 이봉학 목사, 최훈 목

사, 이성현 목사, 정성구 목사, 신홍식 목사, 최기재 목사, 서만수 선교사, 길자연 목사 등이며 이 대회 조직의 고문으로는 김창인 원로목사 등 중경 총회장급 인사 13명이다.

대회 진행 관계로 이번 주 수요일부에는 갈릴리홀에서 드린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김천준 공로장로 소천 5월 15일 교회장 엄수

지난 5월 13일 소천한 고 김천준 공로장로의 장례식이 15일 교회장으로 거행되었다.

김천준 공로장로는 교회 설립 18명 중 한 사람으로, 1956년 우리 교회 제4대 장로로 장립되어 제직회 서무부장, 성전건축위원장, 총현동산 이사, 기획위원, 초대 노년부장 등으로 시무하다가 1976년 공로장로로 추대되었다.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서 충현세계선교보고회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장로)는 오늘(5월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본당에서 세계선교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보고회는 연합으로 열리는 교구모임 후에 진행되는데, 오늘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는 총회 행사 참석차 일시 귀국한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애굽의 이준교 선교사, 이스라엘의 김주경 선교사이다. 이와 함께 갈릴리홀 주변 공간에서 선교사들의 사역 활동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한편 25일에는 총회 선교부가 주관하는 순회 선교 세미나 서울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다.

임마누엘찬양대 성가합창제 출연

우리 교회 임마누엘찬양대가 한국 교회음악협의회가 주관하여 오는 5월 23일(토) 저녁 7시 햇빛선교회관에서 개최하는 성가합창제에 출연한다.

이 성가합창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개신교 찬양대의 상호 협력과 연주를 통한 교회 음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교회는 모두 12개 교회이다.

충현프리즘

①...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전교인들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다.

1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마지막 항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이다. 이런 제목의 기도는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 성도들의 밤낮없는 간구의 제목이다.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사회와 국

가가 되려면 먼저 정직하고 깨끗한 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공식 예배와 집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②...토요일 오후만 되면 갈릴리홀을 비롯한 나사렛홀, 지하 1층 호산나홀, 아멘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연습의 하모니가 듣는 이의 기분을 정서적으로 기쁘게 한다.

20대의 젊은이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들을 내어 아름다운 찬양의 음을 나타내기 위한 조율에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에 된다.

그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하늘의 상급에 들뜬 찬양대원

들에게 내려지길 기원해 본다.

③...지난 10일 어버이 주일에는 영아부 찬양대원들이 본당 광장 앞에 나와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불러,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고사리 손의 울동과 함께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하는 어린 생명의 귀여움에 박수갈채가 힘차게 터져 나왔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카메라 쏠점



▲ 지난 5월 8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충현글로벌찬양’은 충현의 성도들이 영혼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장을 열었다.

평신도 전도 특강 21일 저녁 7시에 본당서

오는 5월 21일(목)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평신도 전도 특강이 개최된다.

교인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은 전도자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전도 특강

에 평신도 전도와 청지기훈련을 받지 않은 직분자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특강은 김민식 집사가 인도하는 찬양의 시간과 이요한 목사의 전도 특강으로 진행된다.

예배 및 기도회 시간 조정

하절기를 맞아 5월 18일부터 새벽기도회 시간을 새벽 5시로, 20일부터 주일 저녁 찬양예배와 수요일부예배 시간을 저녁 7시 30분으로 조정한다.

충현도서관 도서 총정리

충현도서관은 도서 총정리 기간을 정하여, 대출하여 반납 기간이 지나도록 성도들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반납받을 계획이다.
·기간: 5월 17일 ~ 6월 30일
·반납대상도서: 1992년 4월 30일 이전에 대출된 도서
·반납 장소: 충현도서관(선교관 203호)

제17교구 배가운동 전진대회

·일시: 1992년 5월 23일(토) 오후 1시 ~ 6시
·장소: 암사 선사 주거지(우천시 교회당 아멘홀)
·참석 대상:
1) 교구 지도 교역자
2) 교구장 및 지역장
3) 부지역장 및 협력구역장
4) 구역장 및 권찰
5) 7개 남녀전도회 회장단 및 전회원
6) 태신자, 교회학교 학생 전원

금 주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전도 운동, 그리고 선교 운동이 불꽃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형제와 건강을 대하여 주소서.
 3.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 찾기, 교구 배개, 구역장 교육, 충현전도대 교육, 충현글로벌찬양을 위하여)
 4. ‘평신도전도특강’에 참여하여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소서.
 5.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6. 충현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충실히 허락하여 주소서.
 7.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총회 설립 80주년 기념 대회 및 제29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의가 되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현강단

신성중 목사

세례 받으신 예수님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3:13~17)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한 준비적인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중생의 세례로서 성령이 임하는 완전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물세례로 시작하여 성령세례로 마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낱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세례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1. 예수님 세례의 유익

예수님의 세례에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겸손과 장차 받을 고난을 상징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닫혀 있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늘 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은혜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3:17)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문이 열리는 유익, 성령이 임하는 유익,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는 유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2.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있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문제는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3:15)

다시 말해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헌신의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예복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바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헌신의 표현

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 즉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하였던 모든 일들을 인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일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넷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소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한 공개적인 소개가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시기 위하여 자기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나이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티나 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제물이란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세례를 통하여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다섯째, 세례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눅12:50) 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받을 세례”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섯째,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비록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하여 세례 요한 앞에서 죄인들만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하느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3:17)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왕자가 왕 위에 등극할 때에 부르는 노래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내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인 예수님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종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노예들만이 하는 천박한 일들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주시는 교훈

왕이시면서 종이시고, 종이시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는 달리 종처럼 섬기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나 재산이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섬기는 삶이란 주인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왕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둘째, 섬기는 삶이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 본받아

섬기는 삶에 더욱 헌신해야

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일반적인 왕과는 달리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사42:1)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왕으로 오

발을 씻겨주는 삶은 종노릇하는 삶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셋째, 섬기는 삶이란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구제의 손길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공로 없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왕이시면서도 종으로 오셔서 겸손의 도를 몸소 가르치시면서 섬김의 삶을 사신 주님을 따르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립 80주년, 짧고 긴 세월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금년들어 설립 80주년을 맞게 된다. 80주년의 연혁은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구성을 기점으로 환산하여 연륜이 형성되는데, 장로회 구성 이전에 한국인 자생 장로 교회의 움이 솟아 있었다.

1885년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 가 한국에 도착했고, 1889년에는 데이비드가 이끄는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 1892년에는 테이트 등 남장로회, 그리고 뒤이어 캐나다 장로회가 각각 한국 선교를 시작했다.

1893년에는 장로교 선교회 공

데스크 시각

총회 설립 80주년 기념 대회 및 목사·장로 기도회 개최에 즈음하여

손경수 장로(본 보 편집국장)



교회 탄압과 신사 참배 강요 등에 시달리고, 1941년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되기도 했다. 1943년 4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해체되어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으로 흡수되었다. 해방 후 북한 지역 교회는 더욱 심한 탄압 속에 소멸되어 갔으나 남

교회 정치꾼들의 주도권 쟁탈로 모처럼의 부흥 운동에 찬 물을 끼얹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다.

순교자적 신앙 파수의 터 위에 박윤선, 박형룡 박사의 칼빈주의에 입각한 장로교 신학과 교리를 고수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한 장로회 헌법과 12신조, 대소요리문답 등을 교리로 하여 장자 교단의 면모를 이어 오는 오늘의 총회가 되었다.

기념대회로 사랑과 평화를!

우리 총회교회당에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설립 80주년 기념 대회 및 제29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하

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약 5억원의 재정 예산을 수립하여 거교단적인 기념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주요 행사로는 ① 80년사 발간 ② 80주년 기념 화보 발간 ③ 80년 이상된 교회와 교직자 표창 ④ 80주년 기념 도서 및 사진 전시회 ⑤ 80주년 기념 교회 설립 ⑥ 6개 도시 순회 학술 세미나 ⑦ 선교사 초청 위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특히 기념 대회 기간이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와 일정이 똑같아 약 3천명의 전국 교회의 목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이한 태도의 개교회 성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외지하여 성경의 순수성과 변함없는 진리를 재확인하며 교단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복음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기도가 요청된다.

이제 우리 총회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총회 회관을 갖고 있고, 신학 교육 기관인 총신대학 사당동 캠퍼스와 신학대학원 양지캠퍼스(약 24만 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회유지재단과 언론기관인 기독교신보사를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투, 노력했던 주의 종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오늘날 자리를 굳혔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상 머뭇거리 필요없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자각할 때가 되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격언이 있다. 교단이 튼튼하고 총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의회를 조직했고, 1901년에 평양 신학교를 개설했다. 계속해서 1907년에 한국 최초의 독노회, 대한 노회를 조직했고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 일곱명을 배출했다.

그러니까 설립 80주년이 되는 올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부흥, 성장했다.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1991년도말 한국 개신교 통계를 보면 1987년 교단 3만 5천 8백 69개 교회에 5만 6천 2백 86명의 교역자 1천 2백 9만 1천 8백 37명의 성도로 팽창하면서 교파 분열과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속한 예장(합동)측 교세는 1992년 3월말 현재 5천 1백 23개의 교회, 2백 10만 5천 명의 성도로 단일 교단으로는 최대의 교세로 확장된 셈이다. 일제 말기 지속적인

한 지역 장로 교회는 1946년에 남부 총회로 재건되었다. 1949년 제35회 총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명칭을 '대한 예수교 장로회'로 변경하였다.

1951년에는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한 고신측과 분립하였고, 1953년에는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기장측과 분립하였다. 이어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는 보수적 입장의 합동측과(승동측) 이를 찬성하는 연동측(현재의 통합측)으로 분립되어 지속되어 오다가 1975년 제64회 총회에서 주류와 비주류로 형성된 교권 행태가 폭발되어 비주류측이 이탈해가는 또 한번의 분열을 맞보기도 했다.

이 기간에는 만교회 운동을 10개년 계획으로 설정해놓고 교단에 소속된 전국 교회가 전도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지방 이기주의, 교권의 장기화, 타락한

복음을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도 필요

나눔의 은혜를 감사하는 뜻깊은 대회와 기도회이다.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삼상7:12)는 표어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행사 취지가 말해주듯 감사와 화개와 다짐의 시간이 될 것이다.

선교 2세기를 맞아 부흥과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 전래 후 백여년간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사 장로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회는 은혜의 바다로, 저녁 집회는 성령의 폭발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대회의 조직으로 김창인 원로목사가 교문의 역할을 하게 되며,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홍보분과위원장의 직임을 맡아 대내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총회를 향한 미래지향적 기도수많은 순교자와 2백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총회는 설립 80주년의 총회 역사에만 집착

회 행정과 재정 관리가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질 때 합리성이 인정되고, 일한 자가 보람을 느끼게 되고, 신뢰와 전국일꾼의 자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총회 지도층 인사들의 수고에 대하여 전국 교회 성도가 경의를 표하고, 모든 상회 지시를 따르는 풍토 조성에도 더욱 애써야 하며, 큰 믿음의 교회 정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절감한다.

장로칼럼

가정의 달 유감(有感)



이종국 장로
(당회부서기·기획위원)

시원 112편 1월부터 3월까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며,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와 위로, 축복을 전제로 한 약속의 계명인 줄 안다.

믿는 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가정은 바로 '작은 교회'이다. 작은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쁘신 일들만 골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하셔서 야담과 허화를 창조하시어

가정을 이루도록 명하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웃의 가정이 복음화 되고,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다. 가정마다 평안하면 교회가 은혜롭고 나아가서는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계기가 되곤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가정의 화평이 점차 사라지고 파괴되는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되고 있다. 결혼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혼율이 급증하며, 청소년 비행이 점차 늘어가고, 고령자와 청소년의 자살, 진정한 효도와 양육의 부재 현상, 소년 소녀 가정의 증가, 이러한 것들이 이 푸른 5월에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부모 공경 못하는 자식이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겠으며, 자녀 양육을 잘못하는 어버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오월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먼저 성도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저의 가정의 경우는 본의 아니게 한시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에 있다. 편지와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곁에 있을 때에는 가정의 소중함과 평안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떨어져 살고보니 인간적인 외로움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고 배우게 된다. 더욱 기도하게 되고 영적 교동의 필요성, 건강과 평안에 대한 안부가 하루를

꽃을 수 없을 만치 빈번케 되는 놀라운 변혁이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들의 삭막한 마음들을 달래주고, 피곤을 잠재워주고, 창조적인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

우리 교회가 부부교양강좌를 가진 적이 있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부간의 인격적인 대화 방법을 배우며, 서로 한 몸이라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갈등과 편견을 해소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교육을 받고나서 달라진 것은 내가 아내에게 너무 심하게 행동했다는 자책감도 들었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지 못한 용졸함이라든가, 두 아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의 표시를 흠뻑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그리며 새삼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실정은 이제사 철이 드는 것일까. 한편, 남북 이산 가족 방문의 소식이 들리는 요즘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며, 아직도 형적 야산 가족이 우리들 주위에 존재함에 더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새기면서 가정의 달 유감을 몇 자 적어본다.

다음호 칼럼은 조인제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선교특집 ▶

땅 끝에서 전개하는 복음 사역 세계는 우리의 교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변함 없으신 수고와 정성으로 남방 오지 사역에 동역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일사분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남방에서의 사역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장년 131명과 어린이 9명이 결신하게 되었고 2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산따라의 임마누엘 신학

세계의 이복이 집중되기 시작한 곳인데, 1950년에는 수세자가 11만명에 이르게 되었고, 1985년 이리안자야 지역 교회 자립 원칙에 의하여 3개의 노회를 중심으로 이리안자야 개혁 교단(GEREJA PROTESTAN IRIANJAYA)을 설립하고 인도

세 지방자 10명이 성례식을 기다리고 있는 등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본 선교회의 모체인 중현세계선교위원회 시찰단 23명이 지난 4월 13일부터 남방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형편들을 살펴 시며 격려하여 주신 일입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특별 집회와 비디오 성서 대학생들을 위한 특강에 많은

- 서만수 인도네시아 선교사 - 정글 오지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교는 현재 2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일부와 여학생들이 선교관에서 기거하며 오전에는 할렐루야 아기학교(유치원)에서 실습을 하고 오후에는 등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리만탄의 다약교회에서 50명의 학생과 이리안자야 복음교회에서 30명의 학생을 교육시켜 달라는 청원이 있으나 기숙사가 불비하므로 차후에 통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학교 대지 구입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아시아의 아프리카인 이리안자야 지역을 순회하였습니다. 이리안자야는 18세기부터 비로소

네시아 한국 선교부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부 해안의 화확지역에서부터 해발 천5백미터의 톨리계곡에 있는 깡기메지역까지 두루 순회하였는데, 깡기메지역을 순회 중 낮에는 중경총회장 게논가 목사의 통역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저녁에는 교회와 촌락의 대표들과 지역 개발을 위한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복음의 열매를 다져보았습니다.

오지 사역은 1번 뻘데안 교회로부터 65번 갈랑안 교회까지 세워져온 가운데 36번 무라잔 교회에서는 장년 9명이 결신하고, 60번 꾸알라에눅 교회에서는 수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 개척지를 방문하여 선봉기, 학용품, 식료품 등을 전달하면서 지난날의 어려웠던 우리들의 일들을 생각하며 격려하고 더욱 긴밀한 사랑의 유대가 있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 놓고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수고와 정성을 기울이시던 오지 사역의 동역자들을 현지에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 3천여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중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979년 10월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래 선교지 애굽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곳 애굽은 전체 국토의 96퍼센트가 사막이며,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약 3퍼센트에 불과하고 GNP 7백불 미만의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수도 카이로에는 미국의 뉴욕 다음으로 외국 공관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살로 전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카이로 한인교회에서는 지난 부활절에 미국인 교회, 독일인 교회, 애굽인 교회들과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은 이슬람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로서 극렬주의 무슬림들이 자주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는 아슈트 지역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도간에 충돌이 일어나 12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비롯한 주님의 종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중현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교회성장학을 강의하고 수단인 신학생

을 지원하는 등 현지인 목회자 양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애굽에서 가장 큰 교단인 애굽 복음주의 교단 소속으로, 그곳 개신교단 중에서 유일하게 정규 신학 교육 기관을 가진 교단입니다.

또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하

- 이준교 애굽 선교사 - 애굽땅 중앙에 우뚝 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고대하며



여 카이로 변방 신흥 도시 네마주이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가

주님의 이름으로 본 교회의 평안과 지속적 부흥을 기도드리며, 온 성도님들과 선교위원회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이후 3번에 걸친 폭설과 폭풍, 홍수 피해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곳의 대지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킬한인선교교회에서 설교 및 성지연구세미나를 위한 집회를 가진 후, 킬른에서 개최된 제5회 유럽유학생 수련회 세미나 강사로 봉사하며 성지연구의 좋은 반응을

로 하여 이스라엘 유적 및 그 역사의 조직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발굴 기간은 올해 6월 2일부터 7월 31일의 6주간이며 발굴단은 근교의 이스라엘-키부츠에 머물면서 2주에서 6주간 참가하게 되고, 발굴 방법론 및 성서고고학 연구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이스라엘에 성지 연구소를 세워 성지 연구 및 유대인 선교의 산실로 활용하는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한인 교회와 저의 사택에서 운영하던 이 연구

- 김주경 이스라엘 선교사 - 성지 연구 통한 복음의 꽃 피우기를



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임에는 15명의 강사와 250여명의 유학생들이 참석하여 신앙의 격려와 도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선교와 성지 연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예년과같이 이곳에서 제가 주축이 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여 신학교들과 협의해 정규 과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또 여름마다 신학교와 목회자들을 위한 성지 연수와 고고학 발굴팀을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합왕의 별장이었던 이스라엘 발굴팀과 벳산 발굴팀으로부터 협력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TEL JEZREEL)의 고고학 발굴은 텔아비브 대학교 고고학 연구소 및 예루살렘 주재 영국 고고학 연구소의 공동 후원으로 1990년에 시작되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중점으

로 정식으로 마련하여 성지의 성서적 의미와 배경을 깊이 이해시켜 영적 지도력을 충전시키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해 선교요원으로 헌신케 하는 이 일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랍인 교회의 유대인 선교 후원은 적게나마 시작되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제훈련을 받게 하는 목회자 세미나와 같은 좋은 계기가 있다면 현지인 선교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계속 예루살렘 한인교회 협동 교역자로 봉사하면서 이곳 한인회의 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선교의 협력에 선포되며, 또 저의 가족의 건강과 선교 사역의 활성화와 성지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 교회 형식으로 모이는 곳도 있고, 건물을 빌리거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으나, 주변 회교도들의 방해와 경찰로부터의 허가 때문에 아직까지 입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회교권에 서의 선교 사역이나 신앙 생활은 생명까지도 내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카이로 일대의 애굽인 교회 순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특히 카이로에 올라온 2백만명에 이르는 수단인 난민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센터를 지난 4월 2일 개관하여 유능하고 소망 있는 현지인 동역자와 함께 정기 예배, 성경 공부, 직업 훈련, 의료 선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곳에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으리라" (사19: 19 ~ 22)는 말씀에 성취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욱 헌신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